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이주순. 율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신명기 6:2-6	제2독서	히브리서 7:23-28	복음	마르코 12:28-34
--------	------	-----------	------	--------------	----	--------------

◎ 말씀 < 사랑, 지금 이 순간 행해야 하는 것. >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품었던 그 '사랑', 전적인 사랑인 아가페를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과 둘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이것 말고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정의하기 보다는 사랑을 몸소 실천에 옮기고,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어느 가족이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계획을 짰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큰 아들은 집안 청소, 딸은 집을 멋지게 장식하고, 작은 아들은 카드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생일날 아침,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자 엄마와 아이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점심때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가서 아내에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음식준비에 여념이 없는 엄마가 말했습니다. “나 지금 바쁘니까 직접 따라 드실래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큰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실내화 좀 갖다 주렴?” 그러나 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 지금 바쁘는데 아버지가 갖다 신으세요.”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 여기저기를 장식하고 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담당의사에게 전화 좀 해서 아버지가 평소에 먹던 약을 처방해달라고 해주렴.” 딸이 대답했습니다. “저 지금 바쁘니까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아버지는 힘없이 “그러지.” 하고 말하고는 이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이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뭐하니?” 하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해요. 근데 아버지, 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문 좀 닫고 나가 주실래요?” 아버지는 침대에 가서 누웠습니다. 드디어 저녁때가 되어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 되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한다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슬기롭게 대답하는 율법학자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이르셨습니다. 우리들은 슬기롭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슬기롭게 지금 이 순간 부족하더라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느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1월6일(화)	연중 제31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3,340.00 \$ 1,038.00
11월7일(수)	연중 제31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181.00 \$ 159.00
11월8일(목)	연중 제31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2차 헌금	\$ 38.00 \$ 0.00
11월9일(금)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구역미사 (8구역)	기타수입 주일학교	\$ 0.00 \$ 0.00
11월10일(토)	성 대 레오 교황학자 기념일	오전10시30분 (성모신심미사)	합 계	\$ 4,756.00
11월11일(일)	연중 제32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33성인:172명

교무금 봉헌자	장석자((11-12월)손창식(9-12월)염혜진(7-12월)우순이. 최범진. 임원호. 김팔봉. 최원숙. 고정하(9-10월)장호길(6-7월)서량(4-7월)김선식. 장현철. 김정필. 신영후. 김형진. 엄규홍. 임상일(10월)윤재경 김광희(11월)
------------	--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

우리는 ‘모든 성인의 통공’ 을 믿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 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곧 ‘거룩한 것들의 공유’ 와 ‘거룩한 사람들 사이의 친교’ 가 그것입니다.

모든 성도(聖徒)의 친교가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에 각자의 선(善)은 모두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선의 공유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모든 선이 지체들에게 전달되며, 이러한 전달은 교회의 성사들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교회에는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위대한 성인들과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속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살아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호성인이나 좋아하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하느님 곁에 있다고 믿는, 이 세상을 떠난 가족들에게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청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 아직 연옥의 정화 과정 중에 있는 죽은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모든 죄는 공동체에 손상을 입힙니다.

우리는 천국의 성인들과 일치하고 그들을 기억하며 축일을 지내고 그들의 모범을 따릅니다. 천국에 있는 성인들도 우리와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며,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와 천국의 성인들은 천국에 들지 못한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의 친교를 믿습니다. 곧, 지상에서 순례자로 있는 사람들, 남은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죽은 이들, 하늘에 있는 복된 분들이 모두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친교 안에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과 그분의 성인들이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복자 바오로 6세 교황)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염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염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틀리아/이강덕시몬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한오임.소피아의 영혼을 위하여	김미숙.모니카	연	유인희.마리아, 최갑순.마리아의 영혼	류승교.류재순
연	모든 연령들을 위하여	연령회	생	오한빛.수산나의 가정을 위하여	이영숙.테레사
연	모든 연령들을 위하여	정의의 모후Pr.	생	이규청.제노비아의 영육간 건강	임그라시아
연	정민영.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김채홍.어거스틴	생	장선순.글로리아,장석자.요한보스코의 영육간 건강	전율리안나
연	정비아의 영혼을 위하여	가족			
연	이원선.강노일.권태운.진순이의 영혼을 위하여	이종만모세가정	생	윤호현.마르띠노의 영육간 건강	윤비비안나

◎형제의 피◎

당신이 우리 몸을 빛과 향기로 관통해 세상의 그 충격으로 부서진 마음을 고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하신 그 순간, 당신 안에서 우리가 같이 손잡고 형제의 피를 나눕니다

마종기 노렌조 · 시인,의사/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2월 18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